

세상을 담는 그릇

발우展

빈 그릇에 가득찬 가르침...佛心 UP~

"발우를 보니 그동안 쉽게 먹고, 쉽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철(38)씨.
 "스님들이 탁발하고, 발우공양 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져 질로 숙연해 집니다." 보현행(47) 보살.

발우를 비롯한 승물(僧物)과 고승들의 선사화, 도자예술과 함께 승가의 무소유와 소욕지족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3월 18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기획전 '세상을 담는 그릇-발우전'이다. 백령도 문운사(주지 지명)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지명 스님이 수집한 14개국 발우 100여점, 승물 30여점, 그리고 선사화 300여점과 도자 120여점이 전시됐다.

발우는 스님의 밥그릇이다. 발(鉢)은 범어 'patra'의 중국어 표기 발다라(鉢多羅)의 약칭이며, 우(盂)는 그릇을 뜻하는 한자이다. <사분술> 제31권에는 최초의 발우에 대해 전하기를, 정각을 이룬 부처님이 공양 받을 수 있도록 사천왕들이 황금 발우를 올렸지만 거절하고, 돌 발우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결식을 위한 시기가 됐고, 선종에 이르러 발우는 법을 전하는 증표로 법기가 됐다.

3월 18일 열린 개관식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발우의 의미에 대해 "발우는 행복한 사람의 심상처럼 원만한 형상이다. 항상 담겨있지 않고 비어있음을 모두가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명 스님도 "사바세계 중생을 모두가 채울 수 없는 육신에 항상 고통 받고 있다"며 발우는 출가수행자가 안으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밖으로는 중생구제를 위한 '세상을 담는 그릇'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장 입구부터 발우공양을 실감나게 재현한 한지미술가 류기화씨의 탁종이 인형들이 제일 먼저 관람객들을 반겼다. 발우공양을 경험하지 못했다더라도 전시된 탁종이 인형들을 보면 발우공양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의 도움으로 2006년 다람살라에서 기증 받은 제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의 철 발우와 가사, 장엄도 등과 함께 티베트 2대 종파인 까규파의 제17대 법왕 가르마파의 발우를 볼 수 있다. 그 외 캄보디아 텃봉 스님(마하니까이 법왕), 베트남 민 짜우 스님(티엔비엔반한 사원 방장) 등 남방 선지식들의 발우, 티베트 고승의 두개골로 만들어진 두개골 발우와 황옥, 백옥 발우 등 이색 재질의 발우도 선보였다. 한국 발우 중에는 지명 스님이 석주 스님으로부터 직접 기증 받은 '석주 스님 발우'와 무정 스님(강화 청련암)이 부친 한운성 스님에게 전해 받아 기증한 '구하 스님 발우' 등이 있다.

전시를 보고 난 뒤 정해진 어린이(12)는 "우리나라 스님들의 발우는 4가지로 된 나무발우인데, 다른 나라 스님들은 발우 그릇이 하나지만 쇠, 금, 도자 등 다양한 발우를 쓰는 것이 참 신기했다"며 함께 온 어머니에게 "혹시 다른 나라 스님들도 그릇 4개를 쓰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만 들어온 것이냐"고 물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함께 전시된 승물 중에는 흔하게 볼 수 없던 삭도도 눈에 띄었다. 지명 스님은 "삭도는 세속과 출세간을 가르는 경계의 도구"라며 정진을 위해 버리는 개념을 갖는다고 소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승물 18물외에 죽비, 묵탁과 스님들이 소장했던 염주와 금강저 등도 볼 수 있다.

또 서옹·서암 스님 등 역대 조계종 종정과 경봉·석주·고산·원응 스님 등의 선사화들과 함께 수안 스님의 선화와 설봉 스님·천한봉·김경옥 씨의 도자기들도 이번 전시회에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100여점 넘는 발우에 어느 하나 채워진 것 없는 모습을 보며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진리를 배우고 있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개관식이 열린 3월 18일. 많은 불자들이 몰려 이번 전시회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개관식 후 전시물을 관람중인 수안 스님, 김의정 신도회장, 지명 스님, 흥파 스님(왼쪽부터).

지명 스님 문운사 주지

"어렵게 모은만큼 큰 의미 되새기길"



이번 전시회는 백령도 문운사에서 불사 중인 지명 스님이 수집한 발우가 주인공이다. 지명 스님은 어떤 인연으로 발우를 수집하게 됐을까? "해인 사강원에 있을 때 사용하던 발우에 금이 갔었습니다. 도반스님이 건넌 옹기 발우를 받아 쓰면서 자연스레 발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명 스님은 "발우는 승가 소속지족의 상징물이자, 무소유의 대명사"라며 "청빈한 수행자 상을 되새기며 승물의 위의를 재정립할 필요성에서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2002년 첫 번째 전시회를 하고 나니 "준비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스님은 3년전부터 본격적인 발우 수집에 나섰다. 만 5년 만에 다시 열게 된 이번 전시회에는 달라이 라마의 발우와 가사 등 귀한 발우들과 함께 '승물 18물'로 전시물품을 확대시켰다. 발우 하나를 얻기 위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수천km를 날아간 적도 있는 지명 스님은 "정우 스님(통도사 주지)과 라오스 대사 등 지인들의 도움이 있기에 귀중한 발우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어렵게 모은 물건들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보다 많은 불자들이 전시회를 찾아 발우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승물 18물

승물(僧物)은 대승비구가 지녀야 할 물품을 말한다. 스님들이 걸방 속에 넣고 다니거나 수행 정진할 때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소유가 허락된 물건을 일컫는다. 승물 중 삼의, 발우, 좌구, 녹수냥 등은 근본불교 시대부터 비구가 항상 지녀야 할 것들로 '비구 6물'로 규정됐다. 대승불교 시대에 이르러 <범망경 보살계>에는 12가지 물건이 더해져 '비구 18물'로 불렸다.



식발할 때 쓰는 삭도와 청수 울리는 그릇, 물을 거를 때 쓰는 녹수냥과 불감(왼쪽부터).

- 삼 의: 승단에서 개인의 소유를 허락한 세종류의 옷으로 대가사인 승가라와 예불·강의·포살시입는 울다리승, 운력과 취침 등 평상시 입는 안타화를 말한다.
- 발 우: 스님이 사용하는 밥그릇이다.
- 양 지: 양치용 나뭇가지로 오늘날 칫솔을 말한다.
- 조 두: 녹두, 팥 등을 갈아 만든 가루비누다. 경전 등을 대할 때 향시 심신의 청결함을 갖추도록 한다.
- 병: 물을 담아 불단에 올리는 병이다. 수계할 때 관정에 사용되고, 녹수냥으로 걸러 식수로도 썼다.
- 석 장: 스님들의 지팡이로 육환장이라고도 한다. 길을 갈 때 소리로 짐승이나 벌레들이 미리 피하도록 한 지비의 도구다.
- 좌 구: 좌복(방석)을 말한다.
- 녹수냥: 물을 거르는 여과주머니로 오늘날 정수기와 같다.
- 향 로: 향을 피우기 위한 그릇이다.
- 도자(삭도): 머리, 손톱을 깎거나 옷을 마를질할 때 쓰는 칼이다.
- 화 수: 요즈음의 성냥처럼 불을 일으키는 도구를 말한다.
- 수 건: 얼굴, 몸 등을 닦기 위한 천 조각.
- 설 자: 코털을 단정하게 하는 도구.
- 경: 출가자 본인이 수지독송 하는 소의 경전을 뜻한다.
- 승 상: 줄을 엮어 간이형으로 만든 의자나 침상을 말한다.
- 울: 출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적은 책자다.
- 불 상: 불성을 갖춘 모든 중생을 공경하기 위해 소지한다.
- 보살상: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말한다.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지는
 좀 좋은 지장도량을 세웁니다.

불자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인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신축불사상담 1588-1936